

신안 압해도 해안가서 공룡알 화석 무더기 발견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 공룡화석 산지 부각 될 듯

14년 전 대형 육식공룡알 동지가 발견된 곳에서 초식공룡알화석과 공룡뼈화석, 공룡알 파편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26일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에 따르면 최근 목포자연사박물관과 공동으로 신안군 압해도 내태도 해안가를 공동 조사 하던 중 대형 육식공룡알과 초식공룡알, 소형 얇은 알, 뼈화석이 발견됐다.

발견된 대형 초식공룡알 중 4개는 완전한 형태이며 나머지 100여개는 공룡알 파편들로 추정된다.

초식공룡알 크기는 직경 15cm이며 둥근 타원형의 형태이다. 소형 얇은 알 화석은 두께가 0.5mm 이하로 얇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육식공룡 혹은 새의 알일 가능성이 있다.

뼈화석은 2개의 큰 암석 덩어리에서 발견되었으며 일부는 뼈 내부가 비어있는

형태로 발견돼 육식공룡 또는 익룡의 뼈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룡알이 대량으로 발견된 지점은 지난 2009년 대형 육식공룡알 동지가 발견된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으로 정밀 발굴이 진행될 경우 공룡알 군락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역은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와 중국 산둥성 공룡알 산지와 비교 연구를 통해 8000만년 전 동아시아 공룡산란지 환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룡연구센터 관계자는 “육식·초식 공룡알 화석이 특정 지역에서 무더기로 발견돼 학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밀 발굴이 진행될 경우 세계적인 대규모 공룡알 산지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발굴·연구를 진행해 공룡의 생태환경을 새롭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가 목포자연사박물관과 공동으로 신안군 압해도 내태도 해안가를 공동 조사 하던 중 대형 육식공룡알과 초식공룡알, 소형 얇은 알, 뼈화석을 발견했다.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 제공

한편 2009년 신안 압해도에서 지름 2.3m, 높이 60cm, 무게 3톤 크기 수각류 공룡알 동지 화석이 발견돼 지난 201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신안=홍일갑 기자

4년만에 영암왕인문화축제 3월30일 개막...4월2일까지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가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영암군은 오는 3월30일~4월 2일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역사공원, 구림마을 일원에서 왕인문화축제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이란 주제로 열리는 올 축제는 6개 부문 57종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표 행사인 테마페레이드 ‘K-레전드, 왕인의 귀환’을 비롯해 ‘제33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현장백일장’ 등 4종의 주제가 진행된다.

국립공원일출산 생태탐방원 영암 유치기원 음악회 등 18종의 문화공연행사와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등 22종의 참여체험행사, ‘기천영암 관광투어’ 등 6종 연계행사, 포토존 ‘빛으로 물든 영암’ 등 부대행사 등이 펼쳐진다. 영암=이병영 기자

강진청자축제 첫날 북적 주변 관광지도 인파 늘어

지난 23일 개막한 강진청자축제가 첫날 1만 4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요 관광지 방문객도 한 주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청자축제가 개막식날 평일에도 1만 4000여 명이 방문했다.

가우도와 강진만생태공원, 다산초당 등 관광지 방문객 수도 축제 전날인 22일 6515명, 첫날 23일 7007명으로 늘었다.

일주일 전 15일 방문객이 1451명에 비해 서너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청자 축제로 인한 관광객 모객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축제가 본격화되는 주말과 3·1절인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강진 관광객 방문 수는 늘 것으로 보인다. 강진=김윤복 기자



담양군, 재가 장애인 대상 동행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지난 23일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뇌병변, 신체 장애인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장애인 및 가족 25명이 참여 라탄 트레이 만들기를 통해 뇌기능 및 손 근육 활동을 통한 인지기능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담양군 제공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4년 연속 축제콘텐츠 대상

순천시 대표 축제인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4년 연속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에 선정됐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국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콘텐츠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심사해 시상해왔다.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축제콘텐츠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31만명의 관광객 수를 기록했다. 엔데믹 시대 돌입과 함께 대규모 축제를 기획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했고 중앙로 일원에서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까지 축제 장소를 확장해 더 많은 콘텐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천의 식재료를 활용해 만든 푸드포차와 순천형 특화음식 부스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주변상가와 연계한 순례 프로그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한 문화 놀이터 등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2년간 해양 플라스틱 22톤 수거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는 ‘여수·광양항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년간 총 22톤의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해 재활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광양항 자원순환 프로젝트’는 여수·광양항에 입항하는 선박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항만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줄이겠다는 항만 공사(YGPA)의 노력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13개 기관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양 플라스틱의 수거에서 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관리·운영하는 대표 ESG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YGPA는 지난 2년간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국제 친환경인증기관인 Control Union사로부터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6번째로 OBP 수거 인증을 획득해 해양 플라스틱 수거 추적성을 확보했다.

청소업체에 폐현수막을 활용한 마대 등의 수거 용품과 수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광양=안영준 기자

신안 비금농협조합장 업무용 차 사적 사용 제기 논란

조합측 “업무 연장선 용도” 해명 “부인명의 폐업 주유소 방치”에 조합장 “금명간 기름탱크 제거”

신안군비금농협(조합장 최승영) 조합장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내 명의로 운영했던 주유소도 폐업했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6일 신안군 비금면민들에 따르면 조합장이 출·퇴근 시 업무용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차량 임대비 등 관리비용을 조합 측이 납부하고 있다.

비금농협은 업무용 차량으로 기아 카니발 차량 등을 5년 장기임대료 계약해 사용 중이며 최근 새로운 차량을 추가 임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적 사용에 대해 비금농협측은 조합장 업무의 하나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비금농협 관계자는 “농협 규모가 크지 않아 관용차가 없다. 조합장이 출·퇴근용



최승영 신안비금농협 조합장 부인 명의로 운영했던 주유소. 폐업후 8년째 방치되고 있다.

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출·퇴근 시 관내 순찰 및 손님 응대 등 업무의 연장선 용도로 쓰고 있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조합장 부인 명의로 주유소도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폐업한 지 수년이 지났으나 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인 명의의 주유소는 지난 2015년 2월 폐업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하 기름탱크 철거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안전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지자체와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주유소 부지 지하 기름탱크 제거 조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주유소 운영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조합장 선거에 떨어질 경우 운영재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민 A씨는 “주민들은 부인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주유소로 알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떨어질 경우 주유소 운영을 다시 하려는 속셈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시정조치를 받고도 버티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루빨리 시정조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최 조합장은 기름탱크 제거를 최대한 빨리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최 조합장은 “기름탱크 제거 부분은 소방서 소관이다. 2015년 폐업 이후 기름탱크를 제거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2회 소방서에 신청했다”며 “시일 내로 기름탱크를 제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비금농협조합장은 이번 제3회 조합장선거에 정식 출마 했다.

글=사진=신안 홍일갑 기자

해남군립미술관 건립 협약 체결 공재 운두서 그림 중심 운영



해남군립미술관이 ‘공재미술이 중심이 되어 해남 미술이 공존하는 미술관’으로 건립된다.

해남군은 최근 해남운씨 종가 종손 윤성철씨와 해남군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군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시설 조성, 유물의 보존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유물 소유자는 미술관 개관 이전에 해남군에 유물을 기탁 등 제공해 미술관 내 전시·수장 및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술관 운영위원회 설치 시에는 유물 소유자가 참여해 미술관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해 군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전연수 기자